

세계정당인사들의 환영적인 응대 등으로 상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관동
- (명동동원명IC 영수순 코르도 계서)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선제 실시
- 예약 : www.hpdyndy.com 0801-320-7700

한기주 다양한 구질 갖춰라



23일 롯데전서 난타 당하며 힘겹게 세이브 추가
단순한 강속구 승부 안통해... 변화구 개발 시급



‘강속구 마무리’ 한기주의 입지가 위태롭다.
KIA 타이거즈가 지난 23일 막강타선 롯데 자이언츠를 맞아 모처럼 박진감 넘친 승부 끝에 9-8로 역전승을 거두었다.
이날 ‘나홀로’ 5타점을 올린 이재주의 맹활약 덕분에 팀은 2연패에서 탈출했고 마무리 한기주는 6일 만에 세이브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기주는 아웃 카운트 하나를 남겨놓고 롯데 타선에 난타를 당하면서 하마터면 패전투수의 명예를 쓸 뻔했다.
오랜만에 붓물 터진 타격 덕에 9-6으로 앞서나가던 8회, 한기주가 1사 1루에서 일찌감치 마운드에 올랐다. 첫 타자 이원석에게 내야안타를 맞으며 경기를 시작한 한기주는 다행히 라인드라이브성 타구로 한번에 아웃 카운트 2개를 잡아내며

8회 위기를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9회 팽볼 2개로 상대 타선을 요리한 한기주가 마지막 아웃 카운트 하나를 남겨두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인구의 안타에 이어 조성환이 안타를 때려내며 한기주를 흔들었다. 느긋하게 승리를 앞두고 있던 KIA 더그아웃이 슬렁거리기 시작했고, 간베 투수 코치가 급히 마운드에 올라가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롯데의 가르시아와 강민호 마저 안타 행진에 동참하면서 점수는 9-8까지 좁혀졌다.
한기주는 2사 1-3루의 위기에서 손광민을 좌익수 플라이로 잡아내며 가까스로 길었던 하루를 마감했다. 이날 한기주는 경기전부터 네티즌의 압박에 올랐었다. 얼마전 은퇴한 정민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기주의 실명을 거론하

며 KIA 젊은 투수들에게 쓴소리를 했기 때문이다. 정민태는 직구와 슬라이더만 구사하는 한기주의 단점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구종 개발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단순한 구질을 보유한 강속구 투수로 네티즌의 압박에 올랐던 한기주는 등판 내용마저 좋지 못해 자신에 대한 논란에 불을 붙이고 말았다. KIA 코칭 스태프들은 이날 정민태의 표현 방식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한기주의 위기론에 대한 고민은 숨기지 않았다.
한기주가 다양한 변화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림수에서 타자들이 더 유리한 입장이다. 고교 시절부터 150km 넘는 강속구를 뿌렸던 한기주의 직구는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문제는 실투다.

정교한 제구력이 따르지 않는 경기에서 한기주의 강속구는 ‘빠른 배팅볼’로 전략해버린다.
한기주는 올 초 전지훈련에서 하체위주의 투구폼 전환을 통해 볼 끝을 가다듬기 위해 노력했다. 스스로 새로운 구종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던 한기주는 직구의 위력이 통하지 않아 올림픽 무대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기도 했다.
정교함과 변화의 움직임은 놓고 한기주가 어떤 선택을 할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



이용대 ‘금빛 스매싱’ 내달 여수에서 재연

전남 전국체전 배드민턴 단·복식 출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 <사진> 선수의 ‘금빛 스매싱’이 다음달 전국체전이 열리는 여수에서 재연된다.
24일 대한체육회 배드민턴협회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 제89회 전국체전 배드민턴 경기가 다음달 11-16일 여수시 진남체육관에서 열린다.
배드민턴 경기에는 베이징 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화순 출신 이용대 선수가 남자복식과 단체전에 출전한다.
이용대 선수는 단체전 총 5 경기(단식 3경기, 복식 2경기)에서 단식과 복식 1경기에 각각 출전해 강력한 스매싱 등 멋진 경기를 보여 줄 것으로 보인다.
잘생긴 외모와 ‘살인 왕크’로 인기를 끄는 이용대 선수의 경기를 관람하고자 많은 젊은 여성 팬 등이 여수를 방문할 것으로 여수시 등은 전망하고 있다.
이용대 선수는 최근 TV프로그램에 출연해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배드민턴을 했던 일화를 소개해 화제가 되기도 있다. 그는 “경호원들이 경기장을 둘러싼 가운데 경기가 시작됐는데 제가 친 셔플콕이 그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슴을 정통으로 맞췄다. 그 순간 경기장 분위기가 달라져 가슴이 찢어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10월 10일과 16일 전국체전 개·폐회식 때도 베이징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일부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연합뉴스



해남 땅끝서 전국체전 성화 채화

24일 육지의 최남단인 해남 땅끝에서 칠천년들이 전남에서 열리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10월10일~16일)의 두 번째 성화를 채화하고 있다. 이날 천제 봉행의식, 칠천년 성무에 이어 채화된 성화는 지난 19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마니산 참성단에서 채화된 성화와 함께 전남도청에 안치됐으며 오는 10월 6일 전남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합화된 후 전국체전이 열리는 여수 진남경기장에서 불을 밝히게 된다.
/해남=위적량기자 jrwi@kwangju.co.kr

추신수 6경기 연속 안타 뉴욕 양키스 PO행 좌절

미국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한국인 타자 추신수(26)가 6경기 연속 안타로 타점과 득점을 올렸다.
추신수는 24일(한국시간) 보스턴 퀘벡 파크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 방문경기에서 좌익수 겸 3번 타자로 선발 출장, 2-2로 맞선 5회 세 번째 타석에서 2루타로 역전 타점을 올리는 등 4타수 1안타, 1득점, 볼넷 1개로 활약했다.
앞선 두 타석에서 범타로 물러난 추신수는 5회 2사 2루에서 상대 선발 팀 웨이크필드의 2구째(볼 카운트 0-1) 너클볼을 노려쳐 중견수 옆으로 빠지는 2루타를 만들었다. 이후 조니 페랄타의 안타 때 홈을 받아 득점도 올렸다. 7회에 볼넷을 골라 나갔다. 시즌 타율은 0.307(종전 0.308)로 약간 떨어졌다. 클리블랜드는 4-5로 역전패했다.
승리한 보스턴은 와일드카드 1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었다. 반면,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뉴욕 양키스는 탈락이 확정됐다.



신지에 아이언샷 굿!...선두

홀 3~4m 옆에 떨어뜨려 후반 거의 매홀 버디 찬스

KLPGA 선수권 1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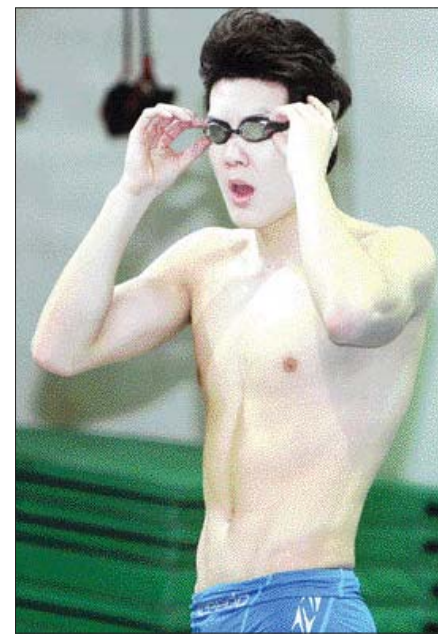
지존 신지에(20·하이마트·사진)가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5승을 위해 단단히 버리고 나왔다.
신지에는 24일 경기도 이천 자유골프장(파72·6천508야드)에서 열린 제30회 신세계 KLPGA 선수권대회 1라운드에서 정확한 아이언샷을 앞세워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잡아내며 5언더파 67타로 공동 선두에 나섰다. 상금 랭킹 1위(4억5천500만원) 신지에는 지난 주 SK에너지 인비테이셔널에서 약천후로 인해 라운드에 축소되는 바람에 상승세가 꺾여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첫날부터 선두에 오르며 상금 레이스에서 추격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릴 기회를 잡았다.
아이언샷은 완벽에 가까웠다. 마지막 홀

인 18번홀(파4)에서 그린을 놓쳤을 뿐 이전까지 신지에는 아이언샷은 그린을 빗나간 적이 없었다. 신지에는 전반에만 4타를 줄였지만 후반 들어 거의 매홀 버디 기회를 만들고도 타수를 더 줄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신지에는 아이언샷을 홀 3~4m 옆에 떨어뜨렸지만 버디 퍼트는 얇막게 홀을 살짝 살짝 빗겨나갔다. 17번홀(파4)에서 1.5m 퍼트를 넣은 것이 후반에 나온 유일한 버디였다.
신지에는 “오늘 6언더파 정도를 예상했는데 3~4m짜리 퍼트를 8개중 7개를 놓쳐 아쉽다”며 “다음 주 삼성월드챔피언십에 들어가 전 우승을 한번 더 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승 경쟁이 없는 손혜경(29), 박우곤(29), 이현주(20)는 5언더파 67타로 신지에와 함께 선두권을 형성했다.
하반기에 3주 연속 우승컵을 거머쥐며 상금 랭킹 2위(3억6천만원)로 뛰어오른 서희경(22·하이트)도 버디 3개를 골라내며 3언더파 69타로 공동 9위에 올라 우승 경쟁에 뛰어 들었다.

박태환 훈련 전담팀 꾸린다

후원사 SK텔레콤 “내달 출범”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 수영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사진)의 전담팀이 또 꾸려진다.
박태환 후원사인 SK텔레콤은 “전담팀을 새로 구성해 2012년 런던올림픽까지 운영하면서 박태환이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박태환은 지난해 초 태릉선수촌에서 나와 수영용품 브랜드 스피도와 계약하면서 처음 전담팀을 꾸렸고, 지난 2월 태릉에 복귀한 뒤에도 대표팀 코칭스태프 뿐만 아니라 전담팀 코칭스태프의 도움을 받아 훈련을 해왔다. 박태환은 스피도와 계약이 올해 말로 끝나면서 새로운 전담팀을 SK텔레콤의 도움을 받아 꾸리게 됐다.
다음달 초에 출범할 예정인 새 전담팀은 웨이트트레이너와 물리치료사, 훈련파트너, 지원팀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국내에서 훈련을 할 때는 노린상 대표팀 총감독의 지도를 받게 때문에 전담 코치를 두지 않지만,



전담팀만 따로 해외 전지훈련을 나갈 때는 외국인 코치를 둘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존에 스피도가 하던 역할을 이제는 우리가 한다고 보면 된다. 전담팀의 국내 훈련과 해외 훈련, 대회 출전 비용 등을 모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